

# UMAP, 대학교육 하나의 아시아를 향한 노력

한서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제협력팀 연구원

## I. 서론

2009년 12월 1일 유럽연합의 27개 회원국에서 비준을 마친 리스본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인구 5억의 유럽합중국이 공식 출범했다. 유럽연합의 정치통합이 연방수준의 유럽합중국으로 발전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강력히 결속된 정치·경제 공동체로 달려가고 있음은 분명하다. 유럽의 통합을 향한 열망과 그 실현 가능성은 지난 1950년대 실패 이후 60여 년간 무수한 도전을 지나오면서 강해지고 단단해졌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갈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각국의 다양성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으로 당선된 헤르만 판 롬파워 벨기에 전 총리는 유럽의 단합과 화합을 강조한다. 지역 블록화가 점점 더 두드러지는 요즘 유럽이 지나온 발자취와 최근의 움직임을 ‘하나의 아시아(One Asia)’를 향한 비전을 실현하는 데 좋은 참고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 각계각층의 논평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여기서 우리

는 화합과 단합의 필수조건으로 다양성의 존중이 꼽혔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유럽의 통합 노력은 고등교육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1987년에 처음 시작된 유럽의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은 유럽 대학들의 국제화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현재까지 200백만 명 이상의 유럽 대학생들에게 국경을 초월한 교육·문화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오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의 대학들에게 성공적인 모델로 벤치마킹할 대상으로 자리 잡은 지 이미 오래다. 물론 유럽 내에서는 아직도 풀어야 할 크고 작은 과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또 논의되고 있지만, 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고등교육 관련 국제기구들은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표방하며 이 지역의 고등교육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저마다의 노력들을 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 기구 중 하나인 UMAP(University Mobility in Asia and the Pacific)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 II. 본론

### 1. UMAP(University Mobility in Asia and the Pacific)

#### 1) 설립 목적

University Mobility in Asia and the Pacific의 약어인 UMAP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고등교육 교류 활성화를 통한 국제이해 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고등교육 분야의 정부 또는 비정부 대표들로 구성된 자발적 국제단체이다. UMAP이 추구하는 목표는 아·태지역 내 고등교육 기관 간 학생 교류를 확대하고, 학생 이동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해결하며, UMAP이 수립한 정책들과 원칙들을 실행하기 위한 저비용·고효율의 조직 구조를 만들어 발전시키는 것이다.

#### 2) 조직

##### UMAP 이사회

UMAP 이사회는 조직의 의사결정기구로서 정회원 대표들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조직의 순조롭고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 권한을 지니며, 이사회를 구성하는 각 정회원 대표들에게 의사결정 투표권이 있다. 이사회는 조직의 전략목표와 예산안을 가결하고, 이를 관리·운영하는 국제사무국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조직의 정관을 개정할 수 있고, 특별위원회를 만들기도 하는데 각 특별위원회는 위원회의 성립 목적인 특정 분야의 결의에 관한 권한만을 가진다. 이사회는 2년에 한번씩 UMAP 회장국을 선출하며, 선출된 회장국이 회장 1인을 지명한다. 회장은 UMAP 이사회 회의와 UMAP 국

제회의를 주최하고 의장을 맡아야 할 의무를 가진다. 회장국과 국제사무국은 일 년에 최소 2번의 UMAP 이사회 회의를 개최할 책임이 있다.

##### UMAP 국제사무국

UMAP 국제사무국은 UMAP 관련 활동들을 통합·조정하고, UMAP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다양한 UMAP 프로그램을 관리·운영하는 곳으로, 국제사무국 의장국은 5년에 한 번씩 교체된다.<sup>1)</sup> 의장국을 희망하는 정회원이 후보로 등록하면 이사회가 각 후보의 제안을 심사하여 선정한다. 선정된 국제사무국 의장국은 사무총장 1인을 지명하고 하부 조직을 구성한다. 국제사무국은 모든 회원사무국을 아우르는 중심 연락기관의 역할도 담당한다.

##### UMAP 회원사무국

각 회원국별로 존재하는 UMAP 회원사무국은 해당 국가의 연락창구 역할을 담당한다. 해당국 내에서 UMAP 교환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홍보하는 곳으로, 해당국가의 고등교육 시스템을 가장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국가별 상황에 따라 대학협의체, 특정 대학 혹은 여러 대학의 컨소시엄, 정부 혹은 이 중 둘 이상의 혼합형태가 될 수 있다.<sup>2)</sup> 회원사무국은 해당국가 내 참가대학을 모집하고 참가대학 명단과 각 참가대학의 담당자 연락처 등 정보를 총괄 관리하며 타국의 회원사무국 혹은 참가대학이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국가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일본의 한 대학이 한국 내 UMAP 참가대학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UMAP 한국사무국인 대교협에서 사안에 따라 선별

1) 현재 UMAP 국제사무국 의장국은 태국으로, 태국고등교육위원회(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가 국제사무국을 맡고 있다.

2) UMAP 한국사무국은 UMAP의 창립회원이기도 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맡고 있다.



제공한다. 같은 맥락으로 한국의 한 대학이 일본의 UMAP 참가대학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UMAP 일본사무국에 연락을 취할 수 있다. 각 회원국별 회원사무국 연락망은 UMAP 홈페이지(www.umap.org)를 참조하기 바란다.

### 3) 예산

UMAP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조직의 예산은 미국 달러로 관리한다. UMAP 국제회의 개최비용은 회장국이 충당하며, 조직의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UMAP 이사회 회의 개최비용은 자발적 기부금으로 충당하며, 이 또한 조직의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제사무국 기초시설 비용은 국제사무국 의장국이 충당하며, 역시 조직의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모든 정회원은 이사회가 승인한 UMAP 예산에 따라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회원별 납부해야 할 회비 규모는 정관의 정칙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는 오로지 이사회 회의 결정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모든 UMAP 이사회 회의 참가비용은 회원국 각자가 부담한다.

정기회비 이외에도 정회원, 준회원 및 비회원국은 자발적 기부를 할 수 있는데, 이는 현물 지급이나 시설 공급 등으로도 가능하다. 모든 자발적 기부의 수용 여부와 사용 방안은 이사회 회의 승인에 따른다.

### 4) 회원자격 및 구분

UMAP의 회원국은 준회원과 정회원으로 나뉜다. 준회원이 되면 UMAP 이사회에 옵서버로 참가할 수 있지만 UMAP 교환 프로그램에는 참여할 수 없다. 국가별

로 책정된 일정금액의 정기회비 납부에 동의한 국가만이 정회원이 될 수 있는데, 정회원이 되면 이사회 회의 참가가 권장되며 UMAP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UMAP의 회원 자격은 다음의 34개 국가 혹은 자치령<sup>3)</sup> 모두에게 열려있다. 이들 국가 중 어느 곳이나 원하는 경우 준회원이 될 수 있으며, 이 외의 국가가 회원국이 되려면 별도의 이사회 상정 및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2009년 현재 정회원은 굵은 글씨로 표기된 20개국이다.

호주,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캄보디아, 캐나다, 칠레, 에콰도르, 피지, 괌,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라오스, 마카오, 말레이시아, 멕시코, 몽골, 미얀마,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와, 페루, 중국, 필리핀, 레위니옹섬, 러시아, 사모아, 싱가포르, 대만, 태국, 동티모르, 미국, 베트남

정회원국의 대학 중 국가가 인정한 고등교육 품질인증을 받은 국·공·사립대학들이 UMAP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데, 2009년 현재 참가대학 수는 364개 대학에 달한다.

## 2. UME (UMAP Multilateral Student Exchange Program)

UMAP 교환 프로그램은 UMAP의 대원칙에 맞게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sup>4)</sup> UMAP의 대원칙 3가지는 UMAP 교환 프로그램에서 1) 참가 학생은 최소 1학기에서 최대 2학기 동안 정규 학습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2) 학생을 받아

3) 이후 편입상 자치령을 포함하여 모두 국가라고 명명하겠다.

4) 대학원생과 대학교직원의 교류도 UMAP 교환 프로그램의 개념에 포함되나, 본고에서는 UMAP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생 교류를 중심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따라서 본고에서 UMAP 교환 프로그램이라 함은 UMAP 대학생 교환 프로그램을 지칭한다.

들이는 대학은 학생의 학비를 감면해 주어야 하고 3) 학생을 보내는 대학은 학생이 이수한 학습 과정의 학점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UMAP 교환 프로그램에는 UME, UBE, USC<sup>5)</sup> 세 가지가 있지만, 이 중 UME 프로그램이 UMAP의 가장 핵심적인 프로그램이자 다른 두 프로그램의 기반이 되는 첫 단계이므로 본고에서는 UME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UME는 UMAP Multilateral Student Exchange Program의 약자로 동 프로그램 참가대학 모두가 잠재적인 파트너십의 대상이 되는 다자 간 학생 교환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UME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UME 참가대학"으로 정식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UMAP의 모든 교환 프로그램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양측이 동의한 협약에 근거해서 이루어질 때만 유효하기 때문이다. 대학 측 등록 절차는 UMAP 한국사무국(대교협)이 참가대학 모집 시 배포하는 UME 협약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비교적 간단하다. 이때 각 대학은 반드시 한 명 이상의 담당자를 지정하여 회원사무국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참가대학 모집이 끝나면 대교협이 확정된 참가대학 명단을 포함한 최종 협약서를 만들어 UMAP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는 것으로 등록 절차가 마무리된다.<sup>6)</sup> 참가대학으로 정식 등록된다는 것은 여타 UMAP 회원국에서 동일한 절차를 거친 모든 UME 참가대학과 학생을 교환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표시이기도 하다. 이는 적게는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의 대학과 수많은 양자 협약을 단 한 번의 다자협약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 하겠다.

단, UME 참가대학이 간과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점이 한 가지 있는데, 이는 회원국 간 교류 시행의 바탕에는 상대국의 고등교육기관 국가인증 시스템 및 그 결정의 적절성을 서로가 존중하고 받아들인다는 의사가 기본 전제로 깔려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UMAP 회원국 내 위치하고 해당국가에서 국가적으로 공식인증을 받았거나 혹은 신용할만한 고등교육 공급 기관으로 인정받은 국·공·사립 고등교육기관이라면 어느 곳이든 원하는 경우 UME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UME 참가대학들은 모두 학생을 보내는 대학(home university) 혹은 학생을 받는 대학(host university)이 되거나 두 경우 모두에 해당될 수 있는데, 학생 교환 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먼저 학생을 보내는 대학일 경우, 1) 학생을 모집·선발하고 2) 학생의 "학습계획(study plan)" 승인하며 2) 필요에 따라 적절한 사전교육(언어교육 포함)을 제공하고 3) 재정지원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며<sup>7)</sup> 4) 학생이 host university에서 이수하게 될 학습과정을 정규과정으로 승인하고 5) 이수 완료 후 전공학점의 일부로써 동일하게 인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학생을 받는 대학일 경우, 1) 외국대학생이 이수할 학습과정의 제공하고 2) 외국대학생의 학습 수행능력을 평가하여 home university에 그 결과를 보고하며 3) 외국대학생에게 적절한 상담 및 기타 지원 서비스 제공하고 4) 외국대학생이 합당한 비용으로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5) 적절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학생을 보내는 대학과 받는 대학 모두 실제적인 학생

5) UBE: UMAP Bilateral Student Exchange Program, USC: UMAP Student Exchange on Special Courses

6) 2009년도 참가대학 모집 시 44개 대학이 응하여 UME 참가대학으로 정식 등록되었다.

7) 이는 UMAP의 대원칙인 상호 간 학비감면을 기본으로 하고, 기타 추가적인 재정적 지원을 의미한다.



교환이 이루어 이전에 상호 학비 감면과 UCTS를 이용한 상호 학점인정 방안에 대해 동의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sup>8)</sup> 이는 UME 협약서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다만, 세부적인 조정이나 사소한 변경 사안 등은 교환학생의 학습 과정이 시작된 후에도 대학 간 별도 협의에 의해 가능하다. 기타 장학금 혜택, 보험료 등에 관한 사안들도 대학 간 상호 협의할 수 있다.

UME 참가대학들은 기본적으로 일 년에 4명까지 학생교환을 할 수 있다.<sup>9)</sup> 이때 학생교환이 반드시 동시에 그리고 쌍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2명의 학생을 보내고 1명만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1명의 학생을 보내고 2명의 학생을 받을 수도 있다. 물론 1명 혹은 2명의 학생을 보내기만 하거나 받기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때 학생을 보내는 대학과 받는 대학은 서로 다른 여러 국가의 여러 대학일 수 있다는 것이다.

### 3. UCTS (UMAP Credit Transfer Scheme)

UMAP은 일찍이 교환 프로그램을 통한 참가대학 간 대학생 교류의 활성화와 상호 신뢰 수준 제고를 위해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부분을 학생 교환 시의 학점 호환으로 인식했다. UCTS는 이 과정을 보다 매끄럽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점 및 성적 변환 시스템으로서 유럽의 ECTS(European Credit Transfer System)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다.<sup>10)</sup> 즉,

UCTS는 서로 다른 고등교육 시스템 간 학점 및 성적의 비교와 전환을 용이하게 하도록 고안된 일종의 학점 및 성적 변환 장치인데, 이를 통해 국가 간 학생 교류 시에 가장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장애물을 최소화하고자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UMAP은 모든 교환 프로그램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학습 과정에 대한 학점 인정 방식을 UCTS에 준용할 것을 오랫동안 주창해오고 있다.

여기서는 UCTS의 주요 구성원(요소)들에 대한 설명을 통해 UCTS에 대한 보다 원활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첫째로, 학생이 “학습 계획” 작성·제출 시 사용하며 교류대학 양 측에서 학습과정별 교과목 및 해당 이수학점 등의 내용에 동의 서명하는 “UMAP 표준신청양식과 UCTS”가 있다.<sup>11)</sup>

둘째로, 학생이 host university에서 이수한 학습량을 home university의 학습량 산출척도에 맞게 전환하기 위한 이수학점산출기준이 있으며,

셋째로, host university에서의 학습성과 평가결과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home university의 성적 평가척도에 맞게 전환하도록 하기 위한 기준인 성적 산출기준이 있다 하겠다.

단, 바로 위 두 가지 요소는 교류대학 양 측의 기존 학점·성적 산출기준을 대체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므로, 오로지 UCTS의 학점 호환을 위한 장치로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위와 구성 요소들과 더불어 다음 주요 구성원들의 역할 또한 UCTS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

8) UCTS(UMAP Credit Transfer Scheme)에 따른 상호 학점인정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9) 이는 2명의 학생을 보내고 동시에 2명의 학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10) 실제로 UCTS는 ECTS의 연간 60점 산출방식을 그대로 채택하였는데, 이는 두 학기제와 세 학기제 모두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 “UMAP 표준신청양식과 UCTS”를 포함, UCTS에 관한 세부사항과 간편한 적용법은 UMAP 홈페이지([www.umap.org](http://www.umap.org))의 “UCTS User Guide”를 참조하기 바란다.

다 하겠다.

첫째로, 학생을 교류하는 양측 대학의 교직원이 있는데 이들은 학생의 학습 계획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로, 학생은 home & host university의 학습과 정별 교과목들을 비교하고 자신의 이수할 “학습 계획”을 수립한다.

셋째로, 학생이 작성 후 제출한 “UMAP 표준신청양식과 UCTS”에 학교 측 확인 서명 및 직인을 날인하는 학적담당 교직원과,

넷째로, UMAP 교환 프로그램에 관한 개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 적절한 재정지원 요소를 발굴하는 UCTS(USCO) 담당 교직원이 있는데, 이는 대학별로 첫째 및 셋째 요소와 중복되거나 혹은 분리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UMAP 교환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UCTS의 활용 증대를 돕기 위한 후방 지원 역할을 담당하는 UMAP 국제사무국이 있다.

다시 한 번 언급하자면, UME 참가대학 모두 협약체결 시 이미 참가학생들의 학점인정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행정적 지원 노력을 할 것에 동의한 상태이며, 무엇보다도 서로 다른 고등교육 시스템 간 학점 호환을 위해 UCTS를 활용할 것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상태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 4. USCO (UMAP Student Connection Online)

앞에서 언급했듯이 UMAP은 회원국들의 대학생 교류를 위한 대학 간 협력을 통해 사회·경제·문화 이해를 증대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전략 목표를 수립하였다.

첫째, 학생 교환과 관련된 문제점과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둘째, 참가대학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대학 간 양자협정에서 다자협정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며,

셋째, 회원국 내 참가대학 간 상호 학점인정 방안을 개발 및 활용하지는 것으로,

위 세 가지 전략목표 모두 앞서 소개한 UME 등 다양한 교환 프로그램 및 UCTS의 개발과 그 활성화를 위한 노력, 그리고 UMAP의 학생 교환에 관한 모든 사안들은 UMAP 협약을 따라야 한다는 운영 원칙에 대한 고집으로 어느 정도 그 결실을 보아왔다.

UMAP은 최근 새로운 전략목표로서 학생 교환 과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생 교류 시 학점 호환을 온라인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USCO(UMAP Connection Online)라 명명된 이 온라인 정보망은, 학생 교류를 실시하는 대학 간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효율화하고 UCTS 활용을 활성화하고자 개발되어 2008-2009학년도부터 본격 가동 중에 있다.

USCO의 활용 방법을 안내하기에 앞서 먼저 USCO가 개발된 목적을 안내할 필요가 있을 듯싶다. USCO는 1) 학기 등록과 학점 호환 등 학생 교환 시 필요한 행정 처리 과정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교류대학 간 협력 강도를 높이고 이로 인해 보다 많은 대학이 UMAP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유도하여 궁극적으로는 국제 이해 증대라는 UMAP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2) UMAP 교환 프로그램 참가대학들의 책임이자 의무인 상호 학비감면의 원칙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하기 위한 도구로서 3) UMAP 교환 프로그램 참가대학이라면 교환학생의 등록과 성적평가라는 기본적인 대학의 행정적 의무를 다해야 함은 물론 UCTS를 활용한 상호

학점인정을 통해 고등교육 시스템 간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함을 상기하기 위한 도구로서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우선 USCO 사용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UMAP 교환 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것이고,

둘째로, 교환학생의 수강등록 및 성적평가를 담당하는 참가대학 교직원들이 있을 것이며,

셋째로, UMAP 국제사무국의 데이터베이스 담당자가 있다.

다음으로 USCO 진행 과정을 간략히 설명함으로써 전체적인 흐름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된 USCO의 개발 목적을 인지했다는 조건 하에 즉, 대학 간 상호 학비감면과 UCTS를 활용한 상호 학점인정 합의 등 협약을 완료한 후에 참가대학에서 국제사무국으로 USCO 사용 권한을 요청하고 그 관리 책임에 동의하면 각 대학 USCO 담당자들과 이들이 승인한 참가희망 학생들이 USCO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를 탐색하거나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UMAP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오게 될 외국대학생들에게 제공할 교과과정 및 과목의 선택은 참가대학의 결정에 의해 좌우된다. 참가대학은 주요 정보, 교과과정에 대한 설명 및 이수학점에 관한 내용 등을 USCO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sup>12)</sup>

참가희망 학생들은 온라인상으로 제공된 정보를 탐색한 후 수학을 원하는 국가, 대학, 교과과정 및 과목들을 선택하게 된다. 그런 다음 UMAP 학생교환을 위한 신청

서를 주어진 양식대로 작성 후 출력하여 이를 담당 교직원에게 제출하여 home university의 승인을 기다린다. “학생을 보내고자 함”을 의미하는 home university의 승인을 받은 신청서를 학생이 USCO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면 USCO 자동시스템에 의해 해당 배치 참가학생 추첨이 진행되고 동시에 각 학생이 선택한 host university로 등록된 신청서가 보내지게 된다. 이후 “학생을 받아들이고자 함”을 의미하는 host university의 최종 수락 과정을 거치면 학생 교환을 위한 준비단계가 마무리된다. 실제적인 학생교환은 보통 그 다음 학기에 시행하면 된다.

### III. 결론

UMAP은 여러 국가의 기관들이 모여 만든 국가단체인 만큼 회원 간 결속력이나 회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강제력이 국내단체에 비해서는 다소 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UMAP은 단순히 국제 네트워크를 위한 모임의 수준을 넘어서 실제적인 고등교육 국제교류·협력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장치들을 꾸준히 개발·활용해오고 있으며, 조직 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들이 매우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여타 국제기구와 차별된다.

UMAP의 영역은 미주대륙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를 아우르고 있지만,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참가의지를 보이는 국가는 일본,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멕시코 등으로 주로 아시아지역 국가이다. 미국, 캐나다 등은 최근 들어 소극적인 참가 실적을 보여

12) UMAP 국제사무국이 연 2회 배치(placement) 준비 과정에서 참가대학별 해당 배치 참여여부를 조사하게 되는데, 이때 해당 배치 참여를 보류하고자 하는 참가대학은 적절한 의사표시를 하여 해당 기간 동안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학교 정보가 보이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주고 있다.<sup>13)</sup> 주목할 것은 올해 처음 인도가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중국이 가입을 위해 준비 중이기 때문에 향후 잠재적인 파트너십 대상지역이 현재보다 훨씬 넓어질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UMAP을 이끌어가는 중심 주체가 아시아 대학이며 그 아시아의 범위 또한 확대되어 갈 것이 예상되는 시점이다.

UMAP은 이미 동아시아지역을 품에 안고 그보다 더 넓은 지역의 아우르는 교류·협력의 틀로서 기능하고 있는데, 왜 한국은 굳이 한·중·일 위주의 새로운 틀을 짜기 위한 노력만을 하려하는지 참으로 의아하다는 대만의 한 교수의 말을 되새겨본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현 위치와 현재 지닌 장단점을 정확히 분석하여 우리에게 꼭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고, 또 지역 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정립해 나가는 꿈을 꾸고 있다. 그렇지만, UMAP이라는 틀도 분명 아시아 지역 내 고등교육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좋은 대안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한국의 대학들은 원한다면 언제든지 이 잘 만들어진 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나아가 주도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과 조건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 고등교육의 국제화와 국제경쟁이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 주도권을 장악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UMAP이라는 작지만 쓸모 있는 연장을 잘 활용한다면 한국대학의 지경이 조금 더 넓어지고 다양해질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새롭고 더 잘 드는 연장도 함께 만들어 가면 될 것이다.

UMAP 회원국들이 극복해야 할 사회·경제·문화적 이질감이나 격차는 유럽지역의 그것보다 클 것으로 예

상된다. 따라서 각자의 다양성에 대한 상호 존중을 최우선시 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노력을 이어간다면 지역 내 고등교육 인재의 자유로운 이동이 실현될 것이고, 이는 결국 대학교육의 '하나의 아시아(One Asia)'를 향한 비전을 실현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

## 필 / 자 / 소 / 개

### 한서은

아주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NUS)에서 동남아시아지역연구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UMAP은 이미 동아시아지역을 품에 안고 그보다 더 넓은 지역의 아우르는 교류·협력의 틀로서 기능하고 있는데, 왜 한국은 굳이 한·중·일 위주의 새로운 틀을 짜기 위한 노력만을 하려하는지 참으로 의아하다는 대만의 한 교수의 말을 되새겨본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현 위치와 현재 지닌 장단점을 정확히 분석하여 우리에게 꼭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고, 또 지역 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정립해 나가는 꿈을 꾸고 있다.

13) 이에 최근 UMAP 이사회 회의에서는 근래 미미한 참가 실적을 보이는 회원국의 관심과 참여를 새로이 끌기 위한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였고, 또한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에 UMAP 공식 후원을 요청하는 신청서 제출을 준비 중에 있다.